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사회문화연구 최윤규 연구위원
(063-280-7180, 010-8640-7180)
- **담당본부장**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21년 12월 22일(정오)부터

‘채용연계형 계약학과’ 로 ICT 전문인력 육성해야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발간

- 4차 산업혁명에 맞는 ICT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‘채용연계형 계약학과’가 제시되었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지난 22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전북형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‘채용연계형 계약학과’를 제안했다.
-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는 지자체와 대학, 기업이 협업하여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.
- 해당 학과 학생은 재학 중 다양한 인턴 실과 현장 실무를 통해 현장 맞춤형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.
-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분야의 만성적 실무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연계형 계약학과가 시행되고 있다.

-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는 성균관대와 삼성의 '반도체시스템공학부', 연세대와 삼성의 '시스템반도체공학과', 고려대와 SK의 '반도체공학과'로 운영 중이다.
-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다양한 대학원 석사과정을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로 운영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.
- 브리핑에서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ICT 기술로 전제하였다.
- 연구원은 전북형 뉴딜의 성공 전제조건을 ICT분야 전문인력 확보로 설정하였다.
- 브리핑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ICT분야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양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. 따라서 전북도 지역 차원의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.
- 올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'데이터산업 현황조사'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데이터 직무 종사자 1만 2천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.
- 브리핑을 작성한 최윤규 연구위원은 "취업연계형 계약학과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"며 "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입시키고, 도내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"고 밝혔다.